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변천 Ⅲ

– 프로그램 및 행사를 중심으로 –

1920년대 문을 연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은 그저 시설과 장서를 갖추고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만 제공하였다. 그러다가 이용자수도 늘어나고 그들의 요구도 다양해지면서 독서교실을 비롯한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는 독서는 물론 취미 · 교양, 인문학강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은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독서교실처럼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뤄 왔으나 평생교육프로그램(문화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교양 · 취미생활까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도서관 평가에 프로그램 및 행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의 변천 중 프로그램 및 행사 부문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특색, 성과 등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독서교실

독서교실은 매년 겨울 · 여름 방학기간에 초 · 중생을 대상으로 전국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독서지도 프로그램이다. 1971년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최초로 운영된 독서교실은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 중에서는 1974년 1월 종로도서관이 최초로 시작하였고, 1974년 8월 남산도서관에 이어서 다음해부터는 전 도서관이 매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자료실이 없는 남산, 종로도서관만 중학생을, 나머지 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5일간 진행되는 독서교실은 도서관이용법을 비롯한 다양한 독서 강좌, 독후활동, 오락 등은 물론 색다른 특별강좌와 체험활동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독서지도를 통한 독서능력 배양, 도서관 이용 생활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별도의 강의실이 없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어린이자료실을 휴실하고 운영함으로써 본래의 자료이용서비스 제한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이용자의 불만을 사기도 하였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로 참가 학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2011년 수료인원 1,117명, 이용도서수 8,989권, 1인 평균 독서량이 9권으로 독서교실은 여전히 도서관의 주요 독서지도 프로그램으로 자리하고 있다.

1일 독서교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1일 독서교실은 도서관 인근 지역의 유아 및 초등학생들이 주중 오전 시간에 하루 1~2학급씩 단체로 어린이자료실을 방문하여 도서관이용법 등을 배우고, 독후활동, 도서관 견학과 함께 직접 책을 골라 읽어보는 독서지도 프로그램이다.

물론 남산도서관처럼 어린이자료실이 없는 경우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몇몇 기관에서는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1일 독서교실'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도서관의 필수적인 독서지도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참가율이 저조하였으나 1990년대부터 늘기 시작하여 2000년 507개교, 68,508명까지 늘어났다가 점차 학교도서관 등이 정상화되면서 2011년에는 518개교 1,080학급, 27,78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야기교실

독서 입문기 어린이로 하여금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도서관 이용 생활화를 위하여 대부분의 도서관 어린이자료실에서 동화 읽어주기를 주축으로 동화구연, 색종이 접기, 그림 그리기 등의 내용으로 이야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15개 도서관 및 학습관에서 34개의 프로그램을 1,477회 운영하였고, 25,045명의 어린이가 참가하였다.

독서회

집단독서를 통한 독서습관 형성, 토론을 통한 발표력, 표현력 신장 등을 목적으로 도서관별로 자발적으로 조직된 독서회가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어린이, 청소년(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등 계층별로 구성되어 독서토론, 독후감 작성 및 발표, 독서 관련 행사 등을 내용으로 활발한 독서활동을 하고 있다.

1969년 종로도서관에 조직된 홍익독서회를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말 현재 110개의 독서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총 회원수 1,642명, 1,491회, 13,634명이 참가하였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은 자료 중심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극히 일부의 기관에서 시작된 평생교육프로그램(주부교실, 문화강좌, 문화교실,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으로 혼용됨.)은 처음에는 소규모로 제공되었으나 점차 수강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이 급속도를 늘어났다. 1996년부터는 연간 예산규모가 약 8억 원 가량 되면서 기관 자체 관리의 한계가 드러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고,

1998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특별회계 내에서 시행함으로써 제도화 되었다.

어학, 컴퓨터, 예능, 체육, 취미, 교양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심지어는 일요일에도 강좌를 운영한다. 1999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 변경된 마포, 영등포, 고덕, 노원(구 중계) 등 4개의 기관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1990년 8개 강좌였던 것이 2000년 89개, 2005년 106개, 2011년 1,359개로 늘어났다.

강좌수는 계속 늘었지만 수강인원은 1990년 179,584명, 2000년 565,932명, 2005년 680,689명으로 늘어났다가 2011년 465,19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강좌도 있지만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강좌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강인원 감소의 주요인은 유사 평생교육기관의 증가에 따른 수요층 분산이라고 생각한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독서 · 문화행사

도서관주간(4. 12. ~ 18.)

도서관의 가치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964년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문교부, 문화공보부의 후원으로 시작된 "도서관주간"은 2012년이 제48회로 도서관의 주요행사로 정착되어 매년 같은 시기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요 행사는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각종 대회 및 체험활동을 개최하고, 모범 이용자 표창, 추천도서목록 배포, 대출권수 확대, 책 · 잡지 나눔 등이 있다.

독서의 달(9. 1. ~ 30.)

1994년 7월 25일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8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제정된 '독서의 달' 은 국민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진흥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 한 달간 각 기관 단체 및 가정 등에서 각각 그 실정에 맞춰 독서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도 도서관 주간과 비슷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는 서울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2004년부터 시작된 독서 캠페인으로 서울시내 공공도서관들이 매년 유아, 초등,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선정된 10권의 도서를 함께 읽고, 느끼고, 토론하며 생각을 공유하고자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마다 주제를 정해 그 주제와 관련된 도서를 선정하고, 약 6개월간(5~10월) 그와 관련된 독서, 문화활동들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단순한 독서프로그램이 아닌 문화와 결합된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도서관의 주요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 밖에도 '세계 책의 날', '청소년 주간' 등을 비롯한 각 도서관 자체의 특색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각종 독서 관련 대회

보통 도서관주간이나 독서의 달 등 행사 기간에 독서의욕 고취, 표현력 신장,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각 기관마다 시작한 시점도 다르고, 그 특징도 다양하나 대략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독서감상화 그리기 대회', '글짓기 대회', '동화구연 대회'로 압축할 수 있다.

도서관의 각종 대회 실적은 대부분 그 역사가 20년 이내이지만 어린이도서관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가 30여년 이어지고 있으며, 용산도서관의 '창작시 공모전'과 고덕평생학습관의 '가족백일장 대회'가 2011년까지 각각 23회, 27회 개최되었다.

2011년 각종 18가지 대회에 4,774명이 참가하였고, 그 중 593명이 수상하였다.

문화행사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여가선용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행사가 자체 또는 재배정 예산으로, 아니면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로 진행되는데 가끔은 재료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도서관이니 만큼 기획 단계부터 '서평쓰기' 나 '도서관 탐방' 처럼 도서관 자료와 연계한 행사를 위주로 하지만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음악, 연극 등 각종 공연을 비롯하여 생태환경체험 등 체험행사, 유적지 · 문화 탐방, 학부모교육, 각종 코칭, 취업, 진로, 인문학 등 주제별 행사, 만들기, 그리기, 장애체험 등 수많은 행사가 2011년 한 해 694개, 1,040회 진행되었고, 119,561명이 참가하였다.

전시회

지역주민의 건전한 취미생활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하여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도서관에 소속된 동아리, 평생교육프로그램 회원 등의 창작물을 전시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예술가 등으로부터도 전시를 유치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517개 전시회에 16,941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대부분의 전시회가 1회성에 그치나 서울특별시공공도서관 연합으로 해마다 운영한 전시회도 있었다. '서울특별시공공도서관 연합 서화전' 은 1989년부터 서울특별시공공도서관 문화교실 회원들의 서예, 사군자 등의 작품을 모아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서예전' 으로 시작되었고, 1993년 5회부터는 동양화, 민화까지 포함하여 그 명칭을 '서화전' 으로 개칭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세종문화회관으로 옮겨 전시하였다. 한 두 해 거르기도 하였으나 2000년까지 총 10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2005년에 경복궁역 미술전시관으로 옮겨 2006년까지 운영하다가 2007년부터 폐지되었다.

감상회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도서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음악, 영화 등 각종 감상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자체 소장된 자료와 기기를 사용하여 진행하나,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외부 공연단체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경우도 많다. 2011년 68개의 감상회를 2,062회 개최하여 98,983명이 감상하였다.

서울특별시립도서관 특색 프로그램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대동소이하나 기관별 특색을 반영,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서울특별시립도서관 특색 프로그램

기관명	프로그램명
강남	청소년 문화 · 예술교육, 장애인독서문화지원
강동	신바람독서문화축제, 책 읽는 가게
강서	푸른이학교, 찾아가는 이야기교실
개포	독서 · 논술대회, 드림터치 · 드림하이
고척	다문화프로젝트, 어르신 · 외국인프로그램
구로	독서마라톤, 한국사수업 · 문화유적답사
남산	독서치료, 토요문학교실, 문학교육센터
도봉	가족독서마라톤, 학교연계독서인증제
동대문	부모코칭, 세계문화체험축제, 문학특성화
동작	찾아가는 행복 독서 코치
서대문	신토도서관학교, 가족백일장대회
송파	청소년독서 · 문화진흥, 도서관에 패밀리가 떴다
양천	학부모교육, 학부모 집단 · 개별상담
어린이	학년별 독서증진대회(감상문...)
용산	독서진흥프로젝트, 다문화 · 외국인프로그램
정독	천자문, 청소년문화해설사, 족보교실, 다문화
종로	노인 특화 서비스 · 프로그램
고덕	환경 · 생태학교, 가족백일장대회
노원	학부모교육, 인문학강좌, 인문학독서회
마포	성인문해교육(늘푸른학교)
영등포	전통사상 · 문화 프로그램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도서관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및 행사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초창기 자료 서비스 또는 공부방 위주로 운영되던 도서관들이 시대적 변화와 이용자 요구에 의해 독서지도 프로그램인 독서교실을 시작으로 각종 1회성 행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운영하는 독서 · 교육 · 문화의 복합공간으로 변모되었다.

도서관의 지평을 넓혔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기관마다 앞 다투어 프로그램 및 행사에 치중하다 보니 정작 도서관의 본분인 자료 및 정보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리고 정체성마저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다른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은 물론이요 백화점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학교 등 유사한 평생교육기관과 차별화되지 않은 프로그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보니 그에 맞는 수요자는 즐거운 반면 뭔가 다른 것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내 ·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평가의 기준에 프로그램 및 행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만을 쫓아 정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평가기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잖은 인력과 시간,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런 부작용이 도서관계만, 서울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도서관에 그렇게 잡다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과연 꼭 필요한가에 대한 회의를 떨쳐버릴 수 없을 뿐이다.

도서관은 자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해야 하는데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에 비해 도서관자료를 매개로 한 프로그램의 수가 너무 적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 물론 독서지도 · 치료, 독서토론, 디베이트, 서평쓰기 등 관련 프로그램도 많지만 그 확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이용자의 독서 프로그램 요구도 높지 않고, 계속적인 인력감소로 프로그램 개발 · 운영에 전적으로 매달릴 사서 또한 충분치 않은 형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디서나 하고 있는 것들은 과감히 없애고 도서관에 꼭 맞는 프로그램만 진행하면 된다. 지금까지 해온 도서관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더욱 발전시키고, 난독증, 독서기피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책과 도서관을 가까이 하는 독서 인구를 점점 확대해 나감으로써 진정한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 정책에 부응하는 학교 연계 프로그램에 좀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

기관마다 프로그램 개발, 강사섭외 등 관련 업무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각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표기관(예: 정독도서관)에 관련 팀을 구성해 프로그램 개발 · 교육 · 지원을 전담케 하고, 각 기관에서는 운영만 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서울특별시교육청. 2000.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변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1996~2012. 『圖書館報 : 서울특별시립도서관 · 평생학습관』. 1995(제10집)~2011(제26집). 서울: 정독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감사자료). 2012. 직속기관 특색사업 내역(평생학습관 · 도서관)

서울특별시 통합 평생학습관/도서관. [online]. 〈http://lib.sen.go.kr/〉

22개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online]

글 | 윤 수 정
마포평생학습관 정보자료과장
cristaly@sen.go.kr